

출판정보의 흐름, 과연 원활한가

도서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지상캠페인 4

수많은 출판사들이 거의 비슷한 책들을 내놓고 더 많이 팔리기를 바란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만든 책의 가치와 장점, 효용성을 한 사람의 독자라도 더 알아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독자들로선, 수없이 쏟아지는 책들을 어떻게 판별하고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골라내야 할지 막막하기만하다. 이럴 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백화점의 상품 카탈로그가 소비자를 자극하듯 자상한 출판정보는 독자의욕을 북돋아준다.

이제 사람들은 서점을 직접 찾아가 책을 구입하는 일을 점점 번거로워하고 있다. 동네책방은 구색이 빈약하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시내 큰 책방을 찾아가면 수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막상 책방에 가서도 신간구별이 힘들 뿐더러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다. 적극적 독자에겐 보다 신속한 신간정보를 다양하게, 잠재적 독자에겐 독서를 유발할 흥미로운 책소개지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출판정보지는 필요한 만큼 풍부한다. 또 그 흐름은 원활한가.

정보전달 형식의 빈약함

일반인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정보는 TV나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다. 일간지들은 거의 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출판란을 만든다. 독자들이 독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신간안내와 서평, 화제의 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일회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꼼꼼한 스크랩 정리를 필요로 한다. 라디오나 TV에서도 물론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으로 책 소개를 하기보다는 한 기획

프로그램에서 3분내지 5분간 고정칼럼식으로 책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스케치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독서정보를 위해 마련된 것은 현재 단 하나의 채널에서만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한가지 효율적인 정보망은 컴퓨터를 통한 자료이용이다. 작년 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컴퓨터 문헌자료 서비스는 96년까지 전국 패키지 시스템화할 계획이지만 현재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본지 14쪽 참조). ISBN·POS제도와 도서관의 충실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전제로 할 때 활발히 이용될 수 있는 컴퓨터의 자료이용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때문이다.

정보전달 형식의 빈약함이 이같은 때 과연 제한된 그 정보나 효율적으로 흐르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 독자들이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 정보란 일회성의 신문·라디오·TV정보와 P·C통신, 그리고 출판간행물의 정기구독을 통해서다. 실제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출판간행물 정보지만, 이것조차 서점의 단골독자이거나 정기구독 등 책에 대해 열성적인 독자들에게 한정적으로 전달된다. 흔한 가판대에서 독서정보지를 발견할 수 없는 건 우리나라뿐이다. 더구나 지방에서 일반독자들이 대형서점에 찾아가지 않고 따로 충실한 출판정보를 접할 기회는 거의 드물다. 간행되고 있는 정보지조차 모르는 독자들이 많고, 무가치인 경우 많은 부수를 발행할 수 없는 것도 원인중의 하나다.

서점에서의 정보는 보다 절실한 현실적 이유로 다가온다. 새 책에 대한 구매소식을 재빨리 파악, 독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점

수많은 출판사들이 거의 비슷한

책들을 내놓고 더 많이 팔리기를

바란다. 독자들은 수없이 쏟아지는

책들을 어떻게 판별해 골라낼 지

막막하기만 하다. 적극적 독자에겐

보다 신속한 신간정보를 다양하게,

잠재적 독자에겐 독서를 유발할

흥미로운 책소개지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출판정보는 과연

풍부한가. 또 그 흐름은 원활한가.

측에선 보다 신속한 정보가 필요하고 또 입수된 도서들을 제대로 분류, 디스플레이를 해야 하지만, 일반 소비자일 경우 출판에서 공급하는 책을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형서점일 경우 많은 출판사들이 거래를 하고 또 물량이 커서 출판사측에서 먼저 신간 목록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지방서점이나 번두리 책방에서는 그러한 정보통로가 막혀 있는 셈이다.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 어떤 종류의 책이 언제 나왔는지 재빨리 파악한 후 필요한 책들을 구입해야 하지만,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에 관한 정보는 출판사별 연간 발행도서목록과 출판정보지들, 신문스크랩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자료는 일단 신간목록으로 활자화된 것을 다시 정보로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속보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도서관에서 최신간을 기대

하지 않는 이유도 이같은 둔화된 정보흐름의 이용에 있다.

주먹구구식의 정보관리는 넘쳐나는 물량을 감당치 못하고 교통정리가 안된 채 각각의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게 된다. 출판사에서 도서관과 서점으로, 서점에서 독자와 도서관으로, 도서관에서 독자와 출판사로 각기 자료교환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지금의 단순한 책전달 방식은 좀더 시원히 뚫릴 수 있지 않을까.

정보채널이 다양한 외국의 예

외국의 예는 항상 우리현실과 비교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선 서점과 도서관에서 철저하고 충실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간행물들은 그 주제와 특성을 달리해 수십종을 헤아린다.

각 일간지들은 일주일에 한번 일요판 혹은 월요판에 3면에 걸쳐 대대적인 출판정보를 신는다. 자세한 신간 안내와 출판통계로 책읽기를 도와주는 내용들. 일반 잡지형태의 출판소식지로는 「週刊 讀書人」이나 「圖書新聞」 「出版ニュース」 등이 유명하고 「本の箱」(계간) 「本の雜誌」(월간) 「Book」(계간) 「요무」(월간) 등 주요한 몇종만 꼽아도 저마다 독특한 특성으로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물론 일반독자들은 주요 시사지나 종합지 등에서 이미 출판소식에 관한 비중있는 기사를 충분히 접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도 독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중요시해서 「よいえほん」(좋은 그림책)이라는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발행 목록이 있는가 하

인간과 자연,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녹색의 이야기들

가우디의 바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이 지구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에서 바라보면 그토록 아름다웠던 녹색의 지구—지구는 지금 결코 무사하지 않습니다. 여우깡깡이가 그렇게도 부러워했고 그렇게도 되고 싶어했던 인간, 그 인간이란 존재 때문에 지구는 이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곳, 죽음의 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가우디의 바다》에서 인간과 지구의 앞날의 캄캄한 절망을 읽고, 희망은 어디 있는지 찾아 보십시오.

《가우디의 바다》— 이 책에는 인간과 지구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메시지가 담긴 여섯 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우깡깡이의 슬픔, 눈 오는 산, 가우디의 바다, 캄캄별의 전설, 사막의 공룡, 누군가.

• 이 책 《가우디의 바다》의 줄이가 어수룩하고 탓하지 마십시오.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재생지를 썼습니다. 디지털 신지 지음 / 디지털 가즈코 그림 / 최시림 옮김 / 값 3,500원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의 신간

•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대) 팩스 739-8791

《책방 정신세계》 전화 741-7033(통신판매도 합니다)

어니스트 칼렌바크 환경미래소설

에코토피아

에콜로지Ecology+유토피아Utopia — 생태학적 이상향 혹은 환경낙원

정교한 과학적 상상력으로 구축해낸 인류의 미래상

21세기의 어느 무렵 미연방으로부터 떨어져나간 생태학적 이상국가 에코토피아의 사회상을 그린 고전적 환경미래소설. 미국으로 상징되는 기존 산업사회의 문제점 하나하나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에코토피아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회상을 모색한다. 미래사회의 대안적(alternative)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서구사회의 생태학적 환경정책 및 기간 산업에 중대한 영감과 시사를 준 미래소설의 걸작.

어니스트 칼렌바크 — H. G. 웰스, 윌 베른, 울더스 헉슬리, 조지 오웰에 뒤이어 나타난 이름. —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김석희 옮김 / 4,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면 전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에서는 대학생
을 위한 '좋은 책 권하기' 목록으로 '독서의
샘물'을 발행하기도 한다. 물론 일본도서관
협회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선정도서를 발표,
장르별로 도서관열람객에게 권할 만한 책들을
소개한다.

일본의 가장 큰 유통기구인 일본판매주식회
사와 동경판매주식회사 등에선 수요를 예측키
위해 미리 나올 책의 정보제공에 역점을 둔다.
「북리버」라는 책자에 분야별 목록을 200자 정
도로 소개하고, 서점에서도 못 구한 책을 구입
토록 'Gift Catalogue For Book Lover' 라는
주문표까지 끼워넣는다. 도서목록발행지들은
분야별로 상세한 정보를 담으면서도 서점에서
구하지 못한 책을 우편판매라는 서비스센터까
지 운영하는 것이 특징.

일본 역시 북클럽제도가 있는데 자체 회원을
위한 도서안내지를 거의 발행한다. 예컨대 멤
버스클럽에서는 「북 데이터」 「아이 필」(계간)
등을 발간, 통신판매 혹은 양서의 무료검색을
이용가능케 한다.

구미의 경우는 더욱 잘 발달한 전산화로 자
료이용의 원활한 소통을 보인다. 일반신문과
시사지에서 튼튼한 도서정보를 뒷받침하는데
이는 미국 뉴욕타임스 일요판 부록 「북 리뷰」
나 영국 타임스의 부록판으로 출발해 독립한
주간지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리먼트」 등에서
입증된다.

주제별로 전문화돼 있는 서점들에선 사서급
직원이 일급 정보원의 몫을 톡톡히 해낸다. 물
론 모든 책방들은 꼭 갖춰야 할 「Basic Book
List」를 기본적으로 비치해 언제든지 열람해볼

수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그 서점에 있는 책은
어떤 형식으로든 검색이 가능하다. 서점은 출
판사와의 관계가 긴밀해서 6개월 전에 미리 발
간할 책에 관한 내용소개를 서점측에 발송, 서
점에서 어떤 책을 입수할 것인지 결정한다. 따
라서 미리 출판될 책을 항목별로 정리해 독자
들의 문의에 서비스가 가능하다. 영국의 「북
셀러」도 그 한종류. 책이 출간되면 저자가 서
점을 순회하며 토크쇼나 사인회를 벌이는
'Author Tour'로 독자에게 색다른 독서욕을
불러일으킨다.

북클럽도 '뉴스 레터'를 통해 다양한 출판
정보를 제공하는데, 예컨대 미국의 'Book of
the Month Club'이나 'Quality Paperback
Book Club' 'The Literary Guild' 같은 북클
럽은 자기 독특한 개성으로 자체선정한 도서
목록을 회원에게 보내준다. 이밖에 도서관 상
대 전문지(미국의 「예컨대 라이브러리 저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출판
정보지들이 발행되고 있다.

책과 독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 필요

책은 개별적 주제에 관한 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원이다.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은 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흡입하고 지적인
고양을 꾀한다. 앞선 정보의 주체라 할 책 그
자체에 관한 정보흐름이 오히려 더딘 것은 우
리 출판의 또다른 허술한 구석이다. 책과 독자
사이의 통로를 매끄럽게 해줄 유효율로서 다
양한 채널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에 관심
을 기울일 때다.

—김지원 기자

추천도서

민족성 재정립 위한 우수고전

문화부서 학생 및 일반인용 22종 선정

문화부는 이달 초 민족정체성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우수고전 22종을 선정, 발표했다.

올초 문화부는 전통적인 우리민족의 기초
교육과정을 새로이 정립하겠다는 취지로 우
수도서선정위원회(위원장 김태길)를 구성,
국민학생, 중·고등학생과 일반인용 우수 고
전도서를 검토해왔다.

「단군할아버지」 「선현의 어린시절」 등 국
민학생용 7종과 「격몽요결」 「퇴계 언행록」
등 중학생용 4종, 「용비어천가」 「논어」 「맹
자」 등 고등학생용 6종, 그리고 「삼국유사」
「열하일기」 등 일반인용 5종 등 선정된 22
종은 앞으로 전국 각지의 공공도서관과 학교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우리 민
족의 기초 교육과정을 재정립하겠다는 목적
에서 출발했다. 즉 「천자문」과 「동몽선습」
「소학」으로 이어졌던 전통교육과정이 서구
문물의 급속한 물결과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으로 말미암아 뿌리뽑힌 채 민족 고유의 지
적, 정서적 교육과정이 공백상태에 놓였다는
문제인식에 근거한다.

이번 사업에 참가한 단체는 내무부 교육
부·체육청소년부 등 관련부처와 대한출판
문화협회·한국도서관협회·새마을문고 중
앙회·전국문화원연합회 등 도서 관련 단체
들이다.

선정된 우수고전 22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학생

- 속담이야기(이병호 엮음, 민족문화추진회)

- 위대한 우리선조(이영호 엮음, 민족문화추진회)

- 옥심쟁이 옹고집(심경석 엮음, 민족문화추진회)

- 꼬리잡힌 호랑이(손수복 엮음, 민족문화추진회)

- 선현의 어린시절(이상현 엮음, 민족문화추진회)

- 허생전-임진록(박경용 엮음, 도서출판곰)

- 단군할아버지(조수익 외 엮음, 민문고)

- 중학생
- 선인의 명언일화(정소문 외 엮음, 민족문화추진회)

- 격몽요결(이영호 엮음, 민문고)

- 퇴계언행록(장수철 엮음, 민족문화추진회)

- 해동소학(정소문 엮음, 민문고)

- 고등학생
- 용비어천가(김중오 엮음, 민족문화추진회)

- 논어(김학주 엮음, 서울대출판부)

- 맹자(안병주 외 엮음, 현암사)

- 시경신해(조관희 엮음, 청아출판사)

- 대학-중용강설(이동기 엮음, 성균관대출판부)

- 서경신해(이가원 엮음, 청아출판사)

- 일반인
- 춘향전(설성경 엮음, 시인사)

- 삼국유사(이재호 엮음, 명지대출판부)

- 삼국사기(이병도 엮음, 율유문화사)

- 열하일기(이이화 외 엮음, 민족문화추진회)

- 목민심서(편역, 6월 출간예정)

조안폴린즈의 최신소설

가면의 천사 I · II

(사랑과 욕망과 증오, 그리고 남는 것은...)

사랑을 찾아 표류하는 젊고 이름
다운 여인들.

배신당한 사랑에 온몸으로 앙갚
음하는 욕망의 화신들.

사랑에 대한 강한 집착이 애증이
되어 증오만을 불태우는 사람들.
이들 활화산같은 개성들이 엮어
가는 애증의 드라마.

조안폴린즈 지음

바다저작권회사 번역실 옮김

I 권 값4,000원 / II 권 값4,500원



섬강에서 하늘까지

아들을 따라 섬강물 속으로 뛰어
든 아내, 그런 처자의 뒤를 이어
생의 의미를 하늘나라에서 찾고
자 했던 장애인.

이들 가족의 끊어질 수 없는 영
혼잇기는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

조해인 장편소설

신국판 / 310면

값 4,000원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112-31호
전화 : 923-7907 팩시 : 929-2319

폴리처상 수상작가 안타일러 소설의 진수!

① 환희와 분노(Searching for Caleb)

5대에 걸친 한 가문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오해,
갈등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초대작 완벽한 심리
묘사와 탄탄한 구성력의 안타일러 소설의 수작.

신국판 / 김혜경 옮김 / 값 5,500원

② 종이장미(A Slipping Down Life)

열일곱 여고생 예비는 사랑하는 가수 케세이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이마에 그의 이름을
새겨 넣는데...

신국판 / 정성호 옮김 / 값 4,000원